

GR인증, KCC 1건에 그린코리아 3건

산자부, GR인증 수여식 개최 ... 2003년 인증기업 수출액 31% 증가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신기술(NT)·우수품질(EM)·우수재활용(GR) 인증에서 금강고려화학(KCC) 및 그린코리아를 비롯한 화학기업들이 우수재활용(GR) 인증을 획득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9월7일 화요일에 기술표준원 강당에서 <2004년도 제4차 신기술(NT: Korea New Technology), 우수품질(EM: Excellent Machine, Mechanism & Materials) 및 우수재활용(GR: Good Recycled) 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여대상은 삼성전자의 <Wace용 Sn-Cu-Ni-P계 무연솔더 제조기술> 등 35개 기업 40품목으로 신기술인증(NT) 16품목, 우수품질인증(EM) 14품목, 우수재활용(GR) 10품목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신기술인증(NT)은 총 679건, 우수품질인증(EM)은 941건, 우수재활용인증 227건으로 집계됐다.

재활용에 대한 화학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우수재활용인증(GR)에 화학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고무블럭 생산기업인 그린코리아(대표 이순우)가 <재생플라스틱 배수로>와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재생플라스틱 비탈면 보호블록>으로 3개의 GR인증을 획득했고, KCC(대표 김춘기)가 <재생그라스울 단열재>로 GR인증을 받았다.

전남 여수의 드림라인(대표 김해수)이 <패분>과 <패화석비료>로 2개의 GR인증을 획득했으며, 인터에이씨(대표 추영택) 역시 <패화석비료>로, 신덕산업(대표 최구화)이 <재활용 크래프트지 쇼핑백>으로 각각 GR인증을 획득했다.

2004년 인증품목 중 코베스트(대표 이상철)의 <재봉기 및 자수기계의 밀실공급장치(2단보빈형)>는 세계 최초로 기존재봉기 구조의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존제품 대비 밀실감감량을 70% 배가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NT·EM 인증을 동시에 획득해 주목을 받았다.

신기술(NT)·우수품질(EM)·우수재활용(GR) 인증은 국내에서 3년 이내 개발된 기술 중 각각 기술 혁신 및 품질 우수성, 재활용으로 실용가능성이 뛰어난 기술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증기업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창업자금 융자,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또는 의무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산자부가 신기술·우수품질인증 제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2004년 7월 330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매출은 2조4300억원으로 전년대비 27.5% 증가했고 수출은 1억4400만달러로 전년대비 31%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대체 측면에서는 2002년 5900억원에서 2003년 7100억원으로 18.6% 증가했고,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액은 2002년 1401억원에서 2003년 1928억원으로 38% 증가했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08>